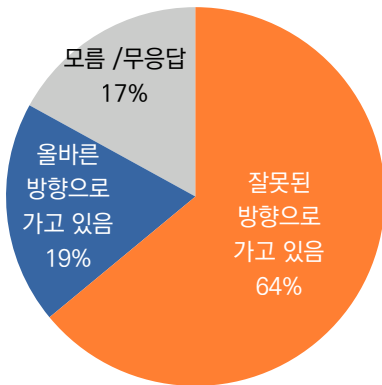




미국 성인 64%,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!

- 영국의 로이터 통신과 시장 조사 기업 입소스가 공동으로 진행(4/24~27)한 미국 성인 대상 미국의 이란 전쟁 관련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. 전반적인 국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'잘못된 방향'(64%)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'올바른 방향'(19%)이라는 긍정적 여론보다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.

[그림] 국가 상황 인식 (2026.04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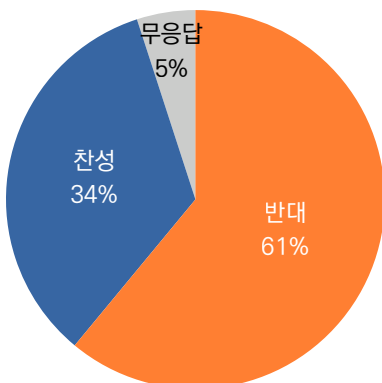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Ipsos, Americans increasingly feel the economy is on the wrong track(미국인들은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점점 더 느끼고 있다), 2026.04.28.(4월 로이터/입소스 핵심 정치 설문조사 결과, 18세 이상 미국인 1269명, 온라인 조사, 2026.04.24.~04.27.) (<https://www.ipsos.com/en-us/americans-increasingly-feel-economy-wrong-track>)

미국인 10명 중 6명, '이란 공격 반대'!

-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조사 결과, 이란 공격에 대해 '반대'한다는 응답은 61%를 기록하며 '찬성' 응답(34%)을 크게 앞질렀다.

[그림]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의견 (2026.04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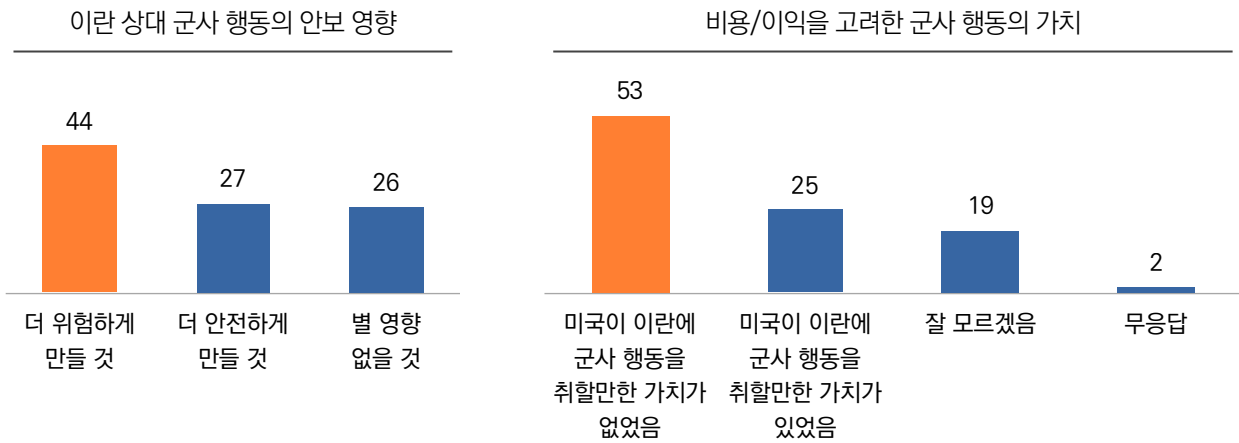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Ipsos, Americans increasingly feel the economy is on the wrong track(미국인들은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점점 더 느끼고 있다), 2026.04.28.(4월 로이터/입소스 핵심 정치 설문조사 결과, 18세 이상 미국인 1269명, 온라인 조사, 2026.04.24.~04.27.) (<https://www.ipsos.com/en-us/americans-increasingly-feel-economy-wrong-track>)

미국인 53%, 이란 상대 군사 행동은 비용만큼의 가치 없었다!

- 미국의 이란 상대 군사 행동 평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4%는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을 '더 위험하게 만들 것'(44%)이라고 내다봤고, '더 안전해질 것'이라는 낙관론은 27%에 그쳤다.
- 또한 군사 행동의 가치 측면에서도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(53%)은 '투입된 비용과 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'고 평가했다. '가치가 있었다'(25%)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.

[그림] 미국의 이란 상대 군사 행동 평가 (2026.04., %)



※출처 : Ipsos, Americans increasingly feel the economy is on the wrong track(미국인들은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점점 더 느끼고 있다), 2026.04.28.(4월 로이터/입소스 핵심 정치 설문조사 결과, 18세 이상 미국인 1269명, 온라인 조사, 2026.04.24.~04.27.) (<https://www.ipsos.com/en-us/americans-increasingly-feel-economy-wrong-track>)